

녹슬고 부서진 해안도로 안전시설

구좌 해안도로 철제 안전펜스 노후된 채 장기간 방치
주민 “바닷물 취약 철제 설치 의문”... 시 “이달 정비”

제주시 구좌읍 해안도로 환상자전거길 일대 설치된 철제 펜스가 노후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안전을 위해 설치된 철제 펜스가 녹이 슬고 부식돼 부러져 있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수·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된 환상자전거길에는 이용객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제펜스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철제 펜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펜스 대부분이 녹이 슬어 있었고 장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인지 심하게 부식돼 부러진 펜스가 자전거길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녹이 슬 철제 펜스의 상단부분을 손으로 잡자, 펜스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펜스가 부식돼 오랜시간 방치되면서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해안도로에서 만난 관광객 조한솔(32·전남)씨는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바다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지만, 녹이 슬 철제펜스가 풍광을 망치고 있어 아쉽다”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명소인 만큼, 빠른시일 내에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해안도로 일대에 설치된 철제펜스는 설치 이후 계속해서 부식이 이뤄져 왔는데, 애초에 행정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도로 환상자전거길 일대에 설치된 철제 안전펜스가 노후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바닷물에 취약한 철제난간을 해안도로에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해안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철제펜스는 2012년쯤 환상자전거길 조성 당시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가 진행중이다”며 “현장을 확인한 후 이달말까지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철제펜스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8@ihalla.com



제주도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동홍동 선거구 <1>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산적인 현안,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 온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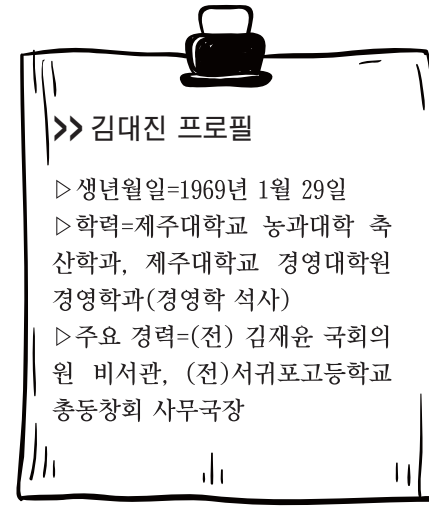
사회적약자·소외계층 대변
주차시설 복충화 등 공약
“주민의견 반영 생활정치를”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귀포시 동홍동, 대전·충남·예래동, 대정읍 선거구 등 3개 선거구 예비후보들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출마의 변, 주요공약 등을 살펴본다.

▶출마 결심 이유는=어릴 시절, 사경을 헤매 정도인 지독한 병을 앓은 후, 지금까지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대학 졸업 후, 민주당에 입당해 정당정치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역의 정치가 우리들의 삶을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장애인을 비롯해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사회적약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동홍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치에 헌신하기로 뜻을 굳히고 출마 민주당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저는 10년, 20년 후의 동홍동과 서귀포시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동홍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에 산적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당선되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우선, 장애인·청소년·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 동홍동 지역의 모든 복지시설을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꾸



어 나가겠다.
동홍동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제주도가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의료 문제도 해결하겠다. 서귀포시는 3차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환자들이 제주시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삼혈관계, 뇌혈관계 질환 및 항암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발전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시 지역으로 후송되는 응급차량 비용을 개인 부담이 아니라 사회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법은=가장 시급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부지매입 후, 주차공간을 복충화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수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 제주도정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장 중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홍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구도심 지역 주민 대부분의 숙원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후보는 동홍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적인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인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실내수영장이 포함되는 체육복합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이 마무리돼 가는 상태다. 실시절계부터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이뤄져 하루빨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저 김대진은 제가 먼저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먼저 듣고, 깊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 더불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4년간 활동하며 정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지 체득했다.

어릴적 지병으로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그 누구 못지않은 근면과 활동력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생활 정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이태윤기자

차기 제주개발공사 사장 누가 될까

후보 3명 원 지사에 추천

원희룡 제주지사가 차기 제주개발공사 사장으로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사장 공모에 지원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명을 대상으로 11일 면접을 실시하고 이 중 제주출신 A·B씨와 도외출신 C씨등 3명을 12일 원 지사에게 추천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이들 중 1명을 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도 고위공직자 출신인 A씨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의회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제주도와 도의회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이사 출신인 B씨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외

출신에 대해서는 누군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달 중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심사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내정자가 사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정자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사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신세계 면세점 경관·건축심의서 ‘제동’

신세계 그룹이 제주에서 추진하는 면세점이 경관·건축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동 판매시설 신축(신세계 면세점)에 대

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면세점 공개공지(공개공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공개공지는 1층 부지 내·외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사용공간을 뜻하는데, 이 공개공지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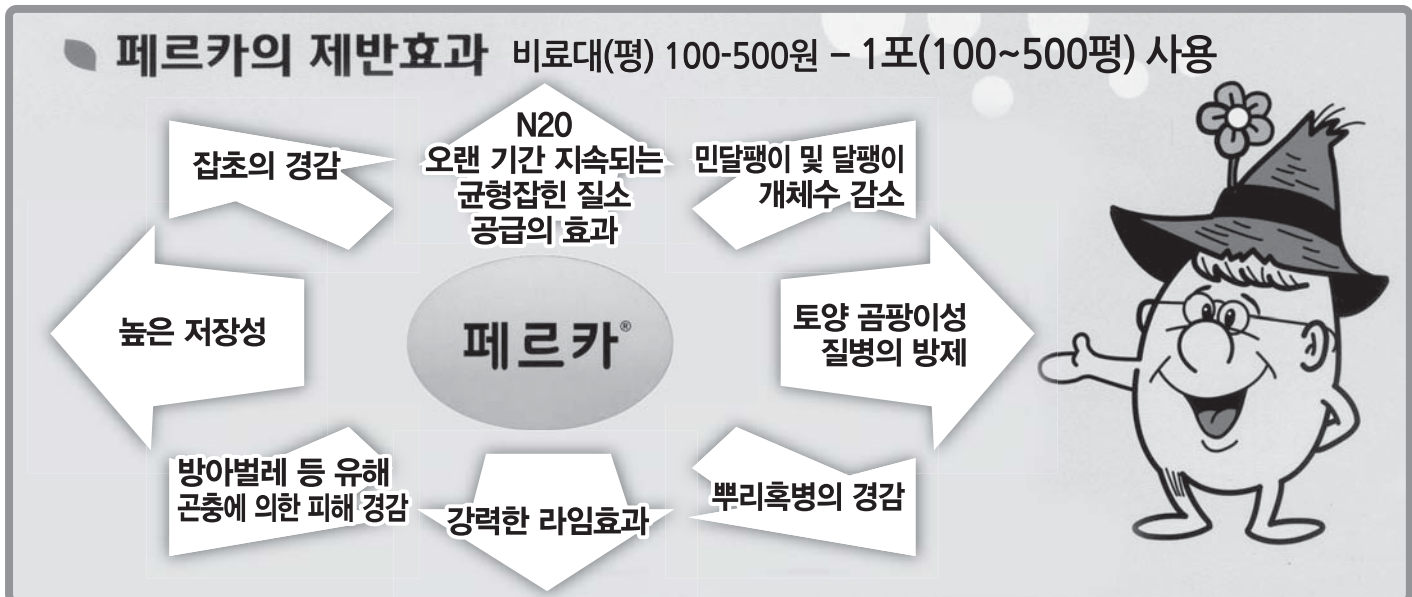
신세계는 현재 제주시 연동 소재 뉴크라온호텔(3888㎡)을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지하 7층·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개점 목표는 2021년 말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최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옆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재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